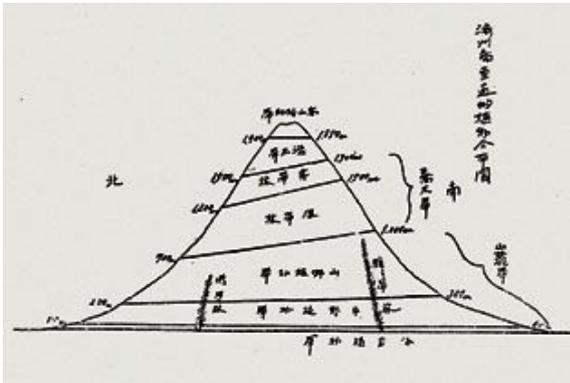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13>]1928년 제주연구의 새 장 열어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05.19. 00:01:00



제1부 제주식물 세계화 100년

12. 제주하계대학

7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8년 7월 25일 경상남도 진해항에는 '에노키'라는 이름의 구축함이 한 무리의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축함은 이튿날 새벽 6시 제주로 향하도록 예정돼 있다.

밤 10시가 조금 지나자 조선총독부의 지질조사 소장인 가와자키(川崎)박사와 경성제국대학 예과 모리 타메조(森 爲三)교수, 이시도야(石戶谷)교수,

우치다(內田)기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모두 일본인으로,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에 파견된 지질, 동물, 식물, 수산분야 전문가들.

기차에 동승한 일행 중에는 경성일보의 일본인 무카에 켄고(向江犬吾) 기자도 끼어 있었다. 전국에서 모인 1백명이 넘는 관련 교사 등도 이 구축함의 승객들이다.

이들은 왜 진해항에 모였을까. 조선총독부는 당시 제주에서 대규모 하계대학강좌를 계획하고 있었다. 구축함에 오른 이들은 제주하계대학에 참가하는 회원들이었다. 이 강좌는 총독부 조선교육회 주관으로 제주에서는 처음 기획됐다. '나비박사' 석주명은 그의 저서 '제주도 수필'에서 1920년대의 제주도 관련 대표적 문헌으로 조선교육회가 주관한 이 하계대학강좌를 꼽고 있다. 하계대학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만한 대목이다. 강좌에는 우리나라 젊은 학자들도 다수 참가한다.

구축함은 예정시간을 2시간 가량 넘겨 오전 8시 진해항을 떠나 제주로 향했다. 승객들은 배멀미로 혼쫓이 나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9시간만인 오후 5시쯤 다시 뜻이 없는 작은 배의 일종인 '거룻배'에 옮겨 타 산지항에 이르렀다.

구축함까지 대동한 제주하계대학은 제주섬을 요란하게 할 만큼 당시로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도청 사람들이나 마을 유지들이 대거 출동해 이들을 맞느라 분주했었다고 전해진다. 경성일보의 무카에 기자는 당시 기록을 통해 "1백50~60명이나 밀어닥쳤으므로 숙박 영업소만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제주도 견문기'를 남긴 박성근(朴晟根)은 "(제주하계대학강좌 참석자로 인해)산지항 부두는 출영자와 구경꾼 등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제주도 개벽이래 미증유의 대성황이었다"고 적고 있다.

총독부 주최로 처음 열린 제주도하계대학은 이렇게 시작됐다. 하계대학은 구축함이 제주로 출발한 7월25일부터 8월 6일까지 13일간 계속됐다. 제주에서는 과거 전례가 없는 학술강좌와 체험·실습으로 진행됐다.

강좌는 ▷제주의 지리, 역사, 지질 및 화산의 연구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난·온·한대에 걸

친 동·식물의 분포상태 ▷연해수산물의 채집 및 실험과 잠수작업 등 제주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한·일 학자들 연구논문 다수 발표

제주하계대학강좌는 그해 총독부 기관지인 '문교(文敎)의 조선(朝鮮)' 8월호와 10월호에 특집으로 실렸다.

8월호에는 강좌 참가자들의 수필과 기행문이, 10월호에는 지질, 동·식물 등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됐다. 특히 10월호에 실린 전문가들의 보고서는 훗날 본도 동·식물 등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강좌는 지금으로 보면 도지사격인 제3대 제주도사(濟州島司, 1923.5~1928.7)인 마에다 겐지(前田善次)의 제주도 소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10일간 제주농업학교에서 열린 강연을 전후해 한라산 등산과 서귀포지역 등을 시찰했다. 회원들은 관심 분야별로 강연이 끝나면 해조나 어패류를 채집하고 동물학자들은 조류·곤충을 잡았다.

'문교의 조선' 10월호에는 이 때 참가했던 전문가들의 논문이 여러편 실렸다. 이때 실린 논문은 '제주도의 육산동물개론'(모리 타메조), '제주도의 식물과 장래의 문제'(이시도야 츠토무) '제주도소생의 식물분포'(모리 타메조), '제주도의 지질학적 관찰'(카와자키) 등으로 훗날 제주 동·식물과 지질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만큼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었다.

경성제국대학의 모리교수는 '제주도의 육산동물개론'에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 척추동물과 곤충과 갑각류 동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동물학자들은 아직도 이 논문을 주요 참고문헌으로 인용하고 있다.

모리는 또한 '제주도소생의 식물분포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제주도식물의 수직분포론을 발표했다. 모리는 이 논문에서 제주의 식물대(帶)를 해안식물대, 산록대, 교목대, 관목대, 고산식물대 등 5대로 나누고 다시 산록대는 평야식물대, 산야식물대, 난대림으로 교목대는 온대림, 한대림으로 세분화시켰다.

이시도야 교수는 제주도 일부 야생식물에 대한 검색표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조선총독부 지질조사 소장이던 가와자키 박사는 당시 7월 31일부터 자동차로 섬 일주를 시도, 다음달 4일까지 5일동안 제주의 지질을 관찰한 기록을 남겼다. 이 논문이 '제주도의 지질학적 관찰'이다.

가와자키는 송악산과 산방산을 둘러 서귀포의 패류 화석층과 하논도 답사했다. 그는 논문에서 "서귀포가 지질학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은어도 아니고 밀감도 아니며 연외천 하구 서쪽 해안 낭떠러지에 있는 화석층 때문이라고 한다. 나는 이에 덧붙여서 그 서북쪽에 있는 대답(大畵)의 화구원을 들고 싶다"고 했다. 그가 지목했던 '대답'이 바로 국내 최대 규모의 마르형의 분화구인 '하논'이다. 최근 하논분화구가 수만년전의 자연사 정보를 간직한 생태역사의 보고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은 가와자키의 주장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조선총독부의 하계대학에는 이덕봉(李德鳳)씨 등 우리나라의 젊은 생물학자들도 다수 참여하였다. 제주대 김문홍교수는 "하계대학의 일부 보고서도 나왔으나 6·25동란때 분실돼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하계대학에 참가했던 이덕봉은 제주하계대학강좌에 참가한 것 등이 인연이 돼 제주도 식물 연구에 심취한다. 그는 후에 고려대 교수로 재임하는 동안 '제주도의 식물상'(1957)을 발표한다. 이 논문은 나카이(中井)박사의 보고와 그 후 단편적으로 보고된 제주도의 식물조사를 종합하고 또한 저자의 조사채집 결과를 발표했다. 172과(科) 655속(屬) 1,262종(種), 220변종을 합쳐 제주

도의 자생식물 종수를 1,482종류로 발표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식물자원이 풍부한 제주도의 식물을 국내학자에 의해 처음으로 종합한 것이었다.

제주하계대학강좌는 요즘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매우 규모있는 학술회의였다. 그 첫 강좌가 1928년에 제주에서 열렸던 것이다.

[사진설명]경성제국대학 모리교수가 1928년 제주하계대학강좌에서 발표한 제주도식물의 수직분포도. 모리는 논문에서 제주의 식물대(帶)를 해안식물대, 산록대, 교목대, 관목대, 고산식물대 등 5대로 나누고 다시 산록대는 평야식물대, 산야식물대, 난대림으로 교목대는 온대림, 한대림으로 세분화시켰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